



"반드럽기는 삼 년 묵은 물박달나무 방망이"

뜻: 아주 오래 다루어서 겉이 매끈매끈한 물박달나무 방망이처럼, 잔폐가 많고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약삭빠름 · 회피 · 교활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반	드	럽	기	는	삼	년	묵	은
물	박	달	나	무	방	망	이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반	드	럽	기	는	삼	년	묵	은
물	박	달	나	무	방	망	이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바드럽기] [삼] [년] [묵은] [물박달나무] [방망이]

웹에서 보기

